

전북 국회의원 10석 유지

선거구 확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례 1석 줄어

군산김제부안 갑·을 등 전북 내 선거구에 변화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현행 10석으로 유지됐다.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에 따라 비례대표는 1석이 줄어들었다.

다만, 군산 대야면과 회현면을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시키는 등 도내 선거구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22대 총선을 위와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오후 6시 52분께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결과 재석 259명,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합의한 4·10총선 확정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지역구 국회의원이 기존 253명에서 254명으로 1석 늘고 비례대표는 1석 줄어든 46석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당 인구는 13만6,0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다. 인구는 지난해 1월 31일을 기준삼았다.

당초 선거구획정위가 내놓은 획정위 원안을 토대로 여야가 인구수 기준을 적용해 합구와 분구 등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석수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이 아닌 타지역에 거대 지역구 탄생을 막고자 예외를 적용하는 특례지역 서울·경기·전북·전

남·강원 5곳을 지정했다.

획정위 원안은 전북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지역구 4석을 인구 하한선 붕괴 지역 발생에 따라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등 3석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호남과 영남 간 지역구 의석수 균형을 위해 현행 4석을 유지하는 대신,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을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시켰다.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이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됨에 따라, 군산과 김제·부안 갑, 을로 총선을 치른다.

또한,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에서 장수가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포함시키게 돼, 완주·진안·무주, 남원·임실·순창·장수 선거구로 총선을 치르게 된다. /특별취재반

“총선 전북 선거구 10석 유지 환영”

김관영 도지사, 10석 지키기에 힘 보태... 정치권에 건의문 전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전북 의석수 10석 유지와 관련해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지켜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희망을 지켜주시는 국회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함께 하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해낼 수 있다. 오늘의 이 성취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진할 것이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전북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 등의 결과로 가결시켰다.

전북 의석수 유지에는 김관영 지사의 땀이 있었다.

이날도 김관영 지사는 전북 정치권과 국회의 찾아 “지역소멸을 부채질하는 선거구개혁 중단하라”며 ‘전북 10석 유지’를 함께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지난달 29일 국회를 방문한 김관영 도지사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윤준병·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수·김술지·김정기·나인권·염영선·윤수봉·윤정훈 전북자치도의원과 함께 전북 10석 유지를 외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한병도 국회의원과 전남도당위원장인 신정훈 국회의원을 포함해 윤준병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과 김성수·김술지·김정기·나인권·염영선·윤수봉·윤정훈 전북자치도의원(가나다순) 등이 동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전북 특별자치도의 비전, 우리 도민들의 열망을 반영할 10개의 통로를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는 국회의원, 도의원, 도민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여야 의원 등을 만나 지역균형발전 등 전북 의석수 10석 유지의 공감대를 넓혀가 전북 의석수 유지 결정에 힘을 보탤 것이다.

또한, 김 지사는 27일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 주말에도 여야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의석수 축소 시도는 바로잡아야 한다. 전북 10석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설득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취재반



제105주년 3·1절 기념사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념식 행사 문구가 때때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윤 대통령이 선 연단 뒤로는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라는 기념식 주제가 대형 글씨로 적혀 있었다. 그런데 문구는 이 문구를 세 줄로 쓰다 보니 ‘자유’의 ‘자’, ‘위대’의 ‘위’, ‘대한민국’의 ‘대’가 각 줄의 첫 글자로 이를 세로로 읽으면 ‘자유대’가 된다는 것이다. 자유대는 일본 방위성에서 운영하는 준군사조직이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이낙연-임종석 만나... 새미래로 결집 ‘관심’

새미래 “새미래 창당 이유 공감... 임종석 합류 확정 아냐”

설훈·홍영표 의원과의 회동 보도에 “사실 아니다” 밝혀

이낙연 새미래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2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공천과정에 반발해 탈당을 결심한 의원들이 새로운 미래를 중심으로 뭉칠 지 주목된다.

3일 뉴스1 취재결과 이 대표는 지난 1일 임 전 실장과 연락해 전날(2일) 서울 모처에서 만났다. 당초 이날 오전 예고했던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잠정 연기한 것도 임 전 실장의 회동 때문으로 보인다.

새로운미래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어제 두 분이 만난 것 맞다”며 “현재 민주당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께서 새미래를

창당하게 된 이유와 배경 등을 설명했고 두 분이 꽤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 전 실장의 새미래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이 관계자는 부연했다.

이 대표는 본래 3일 오전 10시30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4·10총선 광주 지역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예정했다.

그러나 전날 오후 공지를 통해 “예정했던 이 대표의 광주출마 기자회견을 잠정연기한다”며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다. 이 대표의 회견은 며칠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알렸다.

이 대표는 새미래 창당 후 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지적하며 새미래를 보다 민주당다운 ‘진짜 민주당’으로 만들겠

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운영과 공천에 반발해 탈당을 시한한 설훈·홍영표 의원 등과 공천 배제 상황을 겪은 임 전 실장 등에 대해 직접적인 영입 의사를 내비쳤다.

일각에서 이 대표와 김종민 공동대표가 이러한 세력들을 규합해 새미래 표기기에 나설 것인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전날 공지에서 광주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연기한 이유로 밝힌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장’도 이와 연결된다.

실제 이 대표는 설훈 의원과 별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락했을 당시 새미래 입장 제언에 대해 설 의원이 “조금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와 설 의원, 홍영표 의원이 회동했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새미래 측은 “사실 아니다”라고 밝혔다. /뉴스

전북선관위, 도내 재보궐선거 3곳 확정

전주 3 등 자치도의원 2곳·장수군의원 ‘가선거구’ 1곳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다음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하는 재·보궐선거가 3곳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재선거 실시지역은 도의원 1곳(남원시제2선거구)과 군의원 1곳(장수군 가선거구)이며 보궐선거 실시지역은 도의원 1곳(전주시제3선거구)이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지난달 29일까

지 당선 무효나 사직 등으로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며 전국적인 선거지역은 총 45곳으로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2곳, 광역의원 17곳, 기초의원 26곳이다.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 등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이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권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선거 일정은 동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일하다. 후보자등록신청은 21일과 22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일은 4월 5일과 6일 양일간이며, 투표시간은 선거일과 사전투표일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재·보궐선거지역의 선거인은 투표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와 함께 재·보궐선거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교부받는다. /특별취재반

민주, 전북지역 총선 선거구 공천심사결과 발표

단수 - 전주갑 김운덕·익산을 한병도·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2인 경선 - 전주병 김성주·정동영·정읍고창 윤준병·유성엽

3인 경선 - 임실순창남원장수 박희승·이환주·성준후 등 확정

다음달 10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지역 후보들이 속속 결정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일 민주당은 전북지역 선거구 공천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단수공천은 3곳으로 전주갑 김운덕, 익산을 한병도, 예외 특례지역에 포함된 군산·김제·부안을 지역구에는

이원택 등 현역 의원이 각각 공천됐다. 경선지역도 결정됐다.

서울대 국사학과 선후배이자 전·현직 의원의 3번째 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주병에는 정동영 예비후보와 김성주 의원이 2인 경선으로 치러진다. 황형선·김호성 예비후보는 컷오프(공천배제)됐다.

완주·진안·무주 선거구에는 정희

균 예비후보가 컷오프 돼 안호영 의원과 김정호 예비후보가, 동양·고교·대학 동기 동창생이자 전·현직 의원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읍·고창 선거구에는 유성엽 예비후보와 윤준병 의원이 각각 2인 경선으로 치러진다.

남원·순창·임실·장수 선거구에는 박희승 예비후보와 성준후 예비후보, 이환주 예비후보 간 3인 경선이 확정됐다.

한편, 신영대 의원과 김의겸 의원이 경선에 나서게 되는 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 경선은 4일 이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특별취재반

“응원해주신 시민

뜻 잊지 않을 것”

민주 황현선 예비후보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시병 경선이 3인에 도전하는 김성주 의원과 정동영 예비후보의 경선으로 확정됐다.



이에, 황현선 예비후보가 지지자와 시민들께 감사인사를 전했다. 황 예비후보는 지난 1일 “말 말 하고, 할 일 하며 제대로 싸우는 전주시민의 대변인이 되고자 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황 예비후보는 “검찰개혁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의사당에서 외치려 했던 소명, 수십년 기록권과 구태로 멍든 전북 정치를 바꾸고자 했던 노력을 중앙당이 수용하지 못한 현실이 매우 아쉽다”며 전북 정치 혁신과 미래를 택하지 않은 중앙당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또한 황 예비후보는 “전북 정치의 기록권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공고하고, 시민에게 철저히 의면당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미추한 것은 매우 뼈 아쁘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황현선 예비후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특별취재반

“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

‘3선 도전’ 민주 안호영 의원, 무주 5대 핵심공약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무주군의 5대 핵심공약인 ‘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무주 반딧불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은 2035년까지 총사업비 1,040억 원을 투입해 진행될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무주를 당산리 일원에 종합운동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무주군이 청정대관령특별리조트로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태권도 종목처럼 중심으로 관광을 육성해, 시합 때만 머무는 곳이 아니라 수련과 관광을 접목시킨 명소로 탈바꿈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

를 도모하는 방안이다.

무주군은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5개도 6개 시군과 접경하여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다양한 경로로 방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업은 지역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무주군은 공설운동장 및 체육시설의 노후화와 공인 규격 미달로 인해 도민 체육대회 등 대외적인 행사 유치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 중이며, 도민 체육대회 뿐만 아니라 국내 및 국제적인 행사 유치도 가능한 곳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통과된 안호영 의원은 완주·진안·무주 지역구에서 김정호 예비후보와 경선에 나선다. /특별취재반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지난달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9일간의 제2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상길) 소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된 ‘정읍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했다. ‘정읍시 의정활동비(위원장 이도형) 소

관으로 이도형·서향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정읍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과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고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이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김석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후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